



사진 1



사진 2

삼국 · 통일신라시대 - 토기 종지형 등잔(燈盞) ①

토기 등잔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출토품 가운데 여럿 확인이 된다. 도자기 제작 이전까지 주로 토기를 만들어 사용한 까닭이다. 토기는 점토로 형태를 만든 후 섭씨 700~800°C에서 구운 용기 중, 그릇의 표면에 유약(釉藥)을 바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신라나 가야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들 중에는 1,000°C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운 경질토기(硬質土器)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소성(燒成) 온도가 높은 토기는 진흙 속의 광물질이 녹아서 그릇의 벽면에 유리질막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것은 유약을 인위적으로 시유한 것이 아니라 고열로 인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유약이기 때문에 토기로 분류한다. 물론 그릇에 인공 유약을 발라 고온에서 구워내면 도자기가 된다.

토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점토(粘土)는 진흙의 질에 따라 성분의 차이는 있으나 화성암의 주성분인 규산과 알루미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석영, 장석, 운모 등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래를 혼합재료로 섞어 사용한다. 특히, 철분이 많이 섞인 점토를 성형하여 1,000°C 내외의 고온으로 소성한 토기는 경질에다 회흑색, 회청색계의



사진 3



사진 4

사진1 토기 종지형 등잔// 삼국시대(백제)// 높이 2.9~3.5cm, 지름 5.5~8.9cm// 충북 중원군 탑평리 절터 출토//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76쪽.

사진2 토기 종지형 등잔// 통일신라(백제)// 높이 2.2cm, 입지름 9.3cm, 바닥지름 4.5cm// 전남 광양시// 순천대학교박물관 소장

사진3 토기 종지형 등잔// 통일신라(백제)// 높이 2.1cm, 입지름 8.5cm, 바닥지름 6.2cm// 전남 광양시// 순천대학교박물관 소장

사진4 경주 안압지(雁鴨池) 출토 토기등잔// 통일신라//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색채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토기류는 주로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저화도로 소성된 적색토기가 보이기는 하지만 흔치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종류의 것은 백제지역에서 많이 출토된다. 삼국 시대의 토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색상과 재질에 있어서도 각기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들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등잔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종지처럼 생긴 것, 등잔의 가운데 부분에 돌기가 있어 마치 그릇의 뚜껑처럼 생긴 것, 주자(注子) 모양을 한 것, 절구 모양을 한 것, 한 받침에 여러 등을 결 수 있도록 만든 다등식(多燈式) 등잔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가장 흔하고 종류가 많은 것이 종지형 등잔이다. 이 형태는 석유와 전기가 도입되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재질의 변화만 있었을 뿐 형태의 변화는 거의 없이 유지되었다. 기본적으로 등잔 받침대인 등잔대(등잔걸이)와 함께 사용했으며,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박아 불을 켜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불의 민속》, 1996. 고령군, 《대가야고분발굴조사보고서》, 1979.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대가야박물관, 순천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
- 사진5 토기 종지형 등잔// 삼국시대(신라)// 높이 3.7cm, 입지름 9.4cm, 바닥지름 6cm// 경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 사진6 토기 종지형 등잔// 삼국시대(신라)// 높이 3.5cm, 입지름 8.5cm, 바닥지름 6.5cm// 경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 사진7 토기 종지형 등잔// 삼국시대(가야)// 높이 5.2cm, 입지름 9.2cm, 바닥지름 5.7cm//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동 44호분// 대가야박물관 소장
 - 사진8 토기 종지형 등잔// 삼국시대(가야)// 높이 3.3cm, 입지름 7.3cm, 바닥지름 3.1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